

여름철 유행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김정묵/의학박사, 김정묵내과의원장

여름은 높은 온도와 습도 등 열악한 환경에 의한 인체의 면역력저하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번식환경이 좋아 인체는 각종 유행성질환에 걸릴 수 있다.

이들 유행성질환은 모기 등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과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발생하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세균질환으로 크게 나뉜다.

이들 유행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 뇌염

주거환경이 개선될수록 그 발생빈도가 줄고 요즘은 대량발생은 없으나 일단 발병하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고 낫는다 해도 언어장애, 정신박약 등 후유증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유행병이다.

뇌염의 매개체는 모기. 뇌염모기는 돼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돼지의 체온이 39도로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더운 피를 갖고 있다.

돼지피를 뺀 모기가 사람을 물면 전염되는 뇌염은 전부 다 이환되는 것이 아니고 1천명중 5~10명(0.5~1%)이 감염된

다. 그러나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감염되므로 몸이 피로하지 않게 하고 영양상태를 개선시켜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이 질환의 첫 증상은 4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정신이 흐려지고 팔, 다리가 마비되면서 메스꺼움과 구역증세가 생긴다. 이런 증상이 1주일이상 계속될 때도 있는데 초기에 병원에 가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뇌염모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는 8월말에서 9월초. 어떤 때든지 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며 예방백신을 맞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방백신은 효과를 발생하기까지 20일이 소요되므로 일찍 맞아두는 것이 좋다.

뇌염모기가 가장 극성을 띠는 시간은 밤8~9시 사이이므로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 콜레라

여름철 수인성(水因性)질환의 대표격인 콜레라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치사

율이 낮고 환경개선으로 발병률도 현저히 줄었으나 해외여행자의 증가, 날 어패류의 생식 등으로 막별되지 않고 있는 청결환경의 숙적이다.

여름철에 설사 한번 하지않고 보내는 사람은 행운아이나 콜레라는 뜨물같은 배설물과 고열, 구토 등이 특징적인 법정 전염병이다.

전세계적으로 40여만명이 발생하고 있는 이 수인성전염병은 어패류에 감염된 것을 먹는 경우, 대변을 통해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발생한다.

이 균은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소화기관에 들어오면 위산과 장벽에서 형성되는 항체에 의해 자체내 예방이 가능하나 수적으로 많은 세균이 섭취된 경우 또는 음식물 등과 함께 섭취되어 위산농도가 약해졌을 때 소장에서 균주(菌株 Colonization)가 형성되어 분비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국내 토착형 감염증은 아니다.

콜레라균은 그람음성간균으로 변이를 거듭, 최근에는 엘트르형이 가장 극심한 증상을 수반한다.

이 질환의 예방은 청결환경과 음식물을 반드시 끓여먹는 방법밖에는 없다.

동남아여행자는 균의 잠복유무를 세밀히 체크, 보균자는 격리하고 공해상에서 잡은 해산물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토착병이 아니므로 유행때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필수적이며 아메바성 이질, 비브리오증도 주의해야 한다.

● 장티푸스

여름철에 특히 유행하지만 항생제의

“
이들 여름철유행질환은 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줌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청결한 생활이 필요하다.
”

발달로 조기에 치료하면 치사율은 거의 없는 질환이 장티푸스다.

그러나 환자의 관심 소홀로 야기되는 부적절한 치료는 약 3%에서 영구보균자로 남게하고 대부분 담낭에 보균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담낭염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질환 역시 식인성(食因性) 이거나 수인성이므로 청결한 환경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발병되면 심한 고열이 주증상으로 비장과 간이 커지고 장미같은 발진이 피부에 돋는다.

병원에 오기전에 항생제복용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균발견이 쉽지 않고 결국 영구보균자로 남을 확률이 크다.

장출혈이 되면 혈변이 생길 수 있으며 현재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 국민들이 무서움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여름철유행질환은 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줌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청결한 생활이 필요하다.

한등고는 순간부터 정전파동 예방된다